

청렴한 복지의 시작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꼬박 5년 동안 저의 별명은 식모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실실거리며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를 버리고 나간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여 너무나 아픈 호칭임에도 말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집에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고, 네 식구의 집안일은 온전히 저의 몫이 되었으며 동생의 교육, 생활 등 그리고 하다 못해 모든 집안 공과금까지 제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삼 남매에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 나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은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 한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저에게 잔인하게 수없이 많은 가정폭력을 일삼은 그들은 아버지, 언니 그리고 동생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정폭력을 당한 이유는 10년을 넘게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자는 척하고 있는 저희 모두를 깨웠습니다. 고문하다시피 당신 앞에 앉혀 놓고서 어린 동생을 야구방망이로 때린다며 으박질러댔고 저는 그것을 막기에 바빴던 날이 몇 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제가 일방적으로 맞고 이를 이룬 날이면 고등학생이나 된 딸 둘을 엎드려 뺨치라고 해놓고서는 야구방망이 또는 쇠파이프로 엉덩이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권투선수 출신으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때리고도 대체 무슨 분이 풀리지 않은 것인지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앞으로 들어보지도 못할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성인이 되어도 사춘기가 끝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수도 없이 본인의 기분에 따라 별것도 아닌 일에 제 머리채를 잡고 쌍코피가 날 때까지 코를 짓이겨 놓았으며, 열 살 어린 동생과 함께 있는 제 앞의 유리창을 깨서 온몸에 깨진 유리가 쏟아지게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언니에 비해 체구가 작지는 않습니다. 언니의 곱절은 될 만큼 컸고 힘도 훨씬 센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렇게 지옥보다 더한 날들을 보내던 중 아버지가 저희 삼 남매에게 지금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 생활비를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항

상 여자 친구와 성인PC방에서 게임 도박을 했고, 여자 친구에게는 매달 15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미끄러져서 다리가 다쳤다는 등 온갖 거짓말로 보험사기도 수없이 저질렀으며 수차례 큰 금액의 보험금도 수령하였기에 형편이 좋지 않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무기력함과 무책임함, 그리고 부정함과 청렴하지 않음을 말입니다.

주민등록상 저희 남매는 어머니와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일 때 아버지는 허위로 어머니를 실종 신고했고 앞으로 연을 끊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일을 하고도 있었지만, 자영업자이기에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을 써서 그 당시 동사무소에 아버지가 부양의무를 할 수가 없다며 저희를 기초생활 수급자로 부정 신고하였습니다. 관할 시청의 모든 절차가 통과되어 삼 남매는 언니를 세대주로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되어 한 달에 약 6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씹씹이가 헤픈 언니에게 돈을 맡길 수 없기에 구두쇠라고도 불리던 제가 돈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 생활 수급비는 분명 세 명분이었지만, 언니는 본인이 무조건 받을 가져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고 그냥 쥐버리라며 던지시 던진 아버지의 무책임한 말에, 결국 언니와 30만 원씩 나눠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30만 원의 수급비에 대한 지출을 말하자면, 각종 공과금과 네 식구의 식사 준비, 제 용돈과 학교 준비물, 도시락 준비, 동생의 용돈과 동생의 준비물, 동생의 옷까지입니다. 지금 이 지출 내역에 대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게 가능한 일이나며 대단하다고들 말합니다. 저 역시도 다시 해보라고 한다면 절대 못 해낼 것 같습니다.

언니는 평소 아버지의 여자 친구를 아주 싫어했고 아버지와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로 인해 제 눈앞에서 아버지가 언니에게 아주 끔찍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었고, 경찰의 중재로 서로 분리 조치만 되어 그 길로 언니가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 직후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틀째 되는 밤, 또 만취하여 들어온 아버지가 이번엔 저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며 선풍기를 들어 저를 내려찍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언니의 가정 폭력 사건 때, 경찰의 안일한 조치를 목도하였기에 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다음 날 언니가 살고 있는 고시원 옆 방으로 짐을 싸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열여덟 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일찍이 독립을 하게 된 저는 여러 업종에서 1분 1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소득이 많아져 기초 생활 수급 대상에서 탈락된다고 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기초 생활 수급자를 이어가자고 했지만, 곧 성인이 될 저는 아버지와 달리 정정당당하게 사회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와 동생은 기초 생활 수급자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하기에 삼 남매의 세대에서 저만 나오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언니가 돈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3년 후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저에게 닿았습니다. 저는 친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비록 아버지의 사과는 없었지만, 동생을 위해 함께 살자고 하여 다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버지가 어린 동생 앞에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저는 이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새벽에 아버지가 또 만취해서 제 방 창문과 현관문을 발로 차며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현관문을 열었고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생과 방에 들어가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온 경찰은 저희와 아버지를 곧장 분리 조치 해주었고 ‘상습적 폭행이라면 동생에게도 폭행을 저지를 수 있으니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그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또 2~3년 정도가 흐른 뒤, 어느 날 제가 동생에게 ‘수급비는 잘 받고 있어?’ 라고 물었는데 동생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언니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더니 자기 덕분에 나오는 수급비니까 자기 것이라며 열 살 어린 친동생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매달 수급비가 80~1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었으며 언니는 그 돈으로 월세 120만 원의 집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동생 앞으로 나왔던 수급비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부정 수급이기

에 돌려줄 의무가 전혀 없다며 결국 한 푼도 받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언니가 혼자 수급비를 받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며, 동생이 고모네 집에서 얹혀사는 것으로 조작하여 또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였고 이 또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생도 아버지의 가정 폭력에 못 이겨 혼자 살게 되었는데, 수급비에 대한 고마움도 소중함도 모르고 씹씹이가 점점 커지는 것이 제 큰 누나처럼 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이에 제가 잔소리를 하였더니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저에게 온갖 물건을 집어 던지고 폭행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정말 진심으로 목숨같이 키웠던 동생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나서지 않아도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은 벌 받고, 미흡한 규제나 법률이 개선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아무 노력 없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국민신문고에 상세 내용을 기재하여 부정 수급으로 신고하였고, 그 후에 관할 시청에 재문의 하라고 하여 다시 부정 수급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할 시청에서는 아버지와 언니, 동생과 통화도 하였고, 방문도 하였으며 최선을 다해 알아보았지만 아무래도 수사 기관이 아니다 보니 걱정하고 숨긴 증거들이라 부정 수급이라는 확증이 부족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시청 직원은 웃음소리까지 내가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형편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기분 푸시고 그냥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가족이었던 사람을 부정 수급 신고하는 것은 겨우 분풀이로 할 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십 년이나 지속된 부정하고 청렴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들여가며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저는 저 말을 한 시청 직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하지만 화목하게 사는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제가 너무 큰 것을 바랐던 것일까요? 전 아직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일 처음부터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되지 않았거나 중도에 복지 혜택이 끊겼

더라면,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있게 삼 남매를 보살피 주지 않았을까? 언니도 노동력과 그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값진지 알게 되지 않았을까? 지금도 부정 수급을 받고 있는 동생이, 제 아빠와 누나처럼 변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더이상 침묵으로 동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로 한여름 더위에 지쳐 허를 늘어뜨린 개처럼 힘이 쭉 빠지는 절망감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복지로 인해 저와 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나 부정 수급자가 더이상 증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지 혜택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자 소외된 계층에게 넉넉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청렴한 복지의 시작일 것입니다.